



TV속 오리기행

[건강고수] 오리푸딩으로 유방암 극복한 서연씨

SBS 「출발 모닝와이드」 2010년 10월 15일(금) 방영분

[건강고수] 오리푸딩으로 유방암 극복한 서연씨



출산이 늦을수록 발병률이 높다는 유방암! 한국 여성암 사망률 1위인 유방암을 이겨낸 고수를 찾아 탤런트 김형일이 남양주의 한 꽃집으로 향했다.

주인공은 마흔다섯에 셋째 아들을 낳은 주부 서연씨(54세). 셋째를 낳은 출산의 기쁨도 잠시. 때는 2002년, '노산일 때 유방암 위험이크다'는 보도에 놀라 받은 유방검사에서 유방암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오른쪽 유방 전체를 절제하는 큰 수술을 받은 서연씨. 하지만 어린 아들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결국 암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

비법은 오리푸딩과 삶은 토마토 그리고 브로콜리! 수술 후 아픈 어깨는 가족과 매일 배드민턴을 치며 극복했다. 덕분에 행복까지 찾았다는 서연씨의 비법, 정말 효과가 있었을까? 고수 판정단의 평가가 이제 공개된다.



【손범규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출발모닝와이드 시작합니다.



【정미선】 죽음을 이겨낸 건강고수 시간, 탤런트 김형일 씨가 준비하였습니다.

【탤런트 김형일】 통계적

으로 국내 여성 40명 중 1명이 유방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유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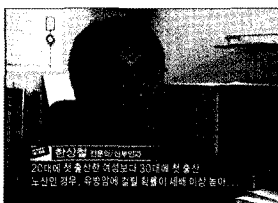
암. 오늘의 주인공은 유방암을 극복해 낸 비법을 소개한다고 합니다. 여성 사망률 1위 유방암.



당신은 안녕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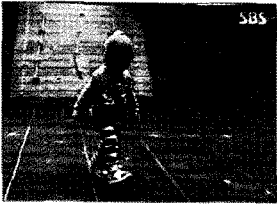
요즘 여성들의 출산이 늦어지면서 유방암에 걸릴 확률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한상철 산부인과 전문의】 20대에 첫 출산한 여성보다 30대에 첫 출산, 노산인 경우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세배 이상 높습니다.



유방암 위험인자는 빠른 초경 혹은 늦은 폐경, 노산



일 경우 45세에 노산으로 아이를 얻은 오늘의 주인공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의사】 유방암입니다.

【과거 서연 씨】 네?



【서연 씨】 가슴이 막 저리고 내가 이제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나 죽는건 괜찮은데 아이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유방암 판정! 그녀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죽음을 이겨낸 건강고수, 유방암을 극복한 서연 씨를 만나러 갑니다.



경기도의 한 꽃집입니다. 유방암을 극복해 낸 오늘의 주인공이 이곳에 계시다고 하는데요?



곁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고수를 알고 계시나요?



【텔런트 김형일】 제가 오늘 건강고수 찾으러 이곳에 왔는데요? 혹시 건강고수가 누군지 알고 계시어요?

【아들 1, 2】 네 우리어머니세요.



가게를 살펴봤는데요. 어머니는 안계시고 웬 꼬마가 있더라고요.



혹시 오늘 건강고수가 누군지 아세요?

【아들 3】 네 우리엄마요.

【아들 1】 서른둘입니다.

【아들 2】 서른입니다.



【아들 3】 열 한살이에요.

【아들 3】 (엄마)저기 오세요!

드디어 주인공 등장!



TV속 오리기행

[건강고수] 오리푸딩으로 유방암 극복한 서연씨



삼 형제의 어머니 서연 씨를 만났습니다.

[서연씨] 제가 약 8년 전에 유방암 수술을 했는데요. 늦둥이 덕에 유방암을 발견하게 됐어요. 꽃다운 스물세살에 결혼해 두 형제를 낳았는데요,



그리고 19년 만에 임신.

[서연씨] 그때 제가 마흔 다섯 살이니까 이 나이에 무슨 임신이 되려나 하고 무심코 지냈어요. 임신이라고 했을 때 하늘이 노랄더라고요. 이 나이에 낳아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지만 가족의 적극적인 후원에 출산을 결심했습니다요.

[과거 서연씨] 우리막동

이 무럭무럭 자라서 건강하게 나와야해.



그렇게 세상에 나온 늦둥이. 한 뼘씩 자라나는 늦둥이를 바라보며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팔과 어깨에 찾아온 강한 통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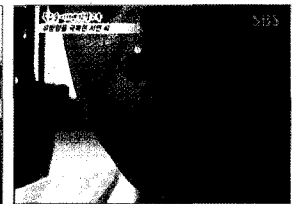


[서연씨] 팔을 들리면 어깨가 뻐뻐하고 아픈 거예요. 나이 먹어서 생기는 오십견 아닌가 하고 별다르게 생각하지 않았 습니다.

그리고 늦둥이 창규가 2살이 되던 날,



[tv 뉴스] 유방암의 발병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늦은 출산이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때까지 한 번도 유방암검사를 받아 본 적이 없던 서연

씨, 결과는?

【의사】 유방암입니다.



【서연 씨】 하늘이 노랗고 땅이 꺼지는 것 같더라고요. 오로지 늦둥이 생각 밖에 안들더라고요.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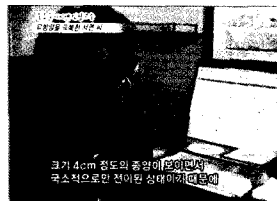
아이는 누가 키울 것인가. 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 심정은 진짜 아무도 몰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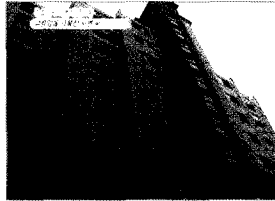


아직 엄마의 손길이 절실한 어린 창규. 남겨진 아이를 위해서라도 살아야만 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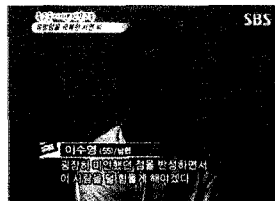
서연 씨는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한상철 전문의】 크기 4cm 정도의 종양이 보이면서 국소적으로만 전이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른쪽 유방 절제술을 시술했습니다.



3년 동안 이어진 긴 투병 기간 동안 큰 힘이 되어준 남편. 유방암 환자의 경우 팔이 붓거나 저릴 수 있기에 날마다 마사지를 해주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서연 씨 남편】 굉장히 미안했던 점을 반성하면서 이 사람을 덜 힘들게 해야겠다. 무언가 힘이 되어야겠다. 그런 마음뿐이었어요.



서연 씨 유방암 수술 후 기력을 되찾은 비법이 있는데요?



유방암 수술 후 기력을 되찾은 비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서연 씨】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TV속 요리기행

[건강고수] 오리푸딩으로 유방암 극복한 서연씨

낮선 색과 향. 도무지 알 수 없는 정체 음식!!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먹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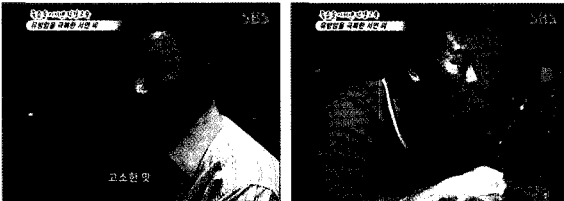


【탤런트 김형일】 저는 이런 맛은 처음 느껴 보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게 뭔가요?



【아들 2】 한약 같은 맛

【아들 3】 꿀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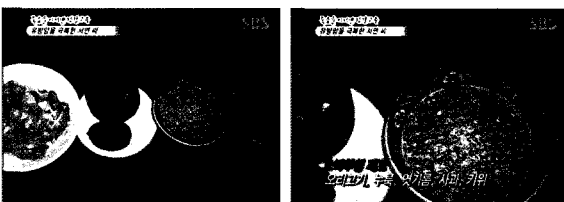


【서연 씨 남편】 고소한 맛

【탤런트 김형일】 이 정체가 뭐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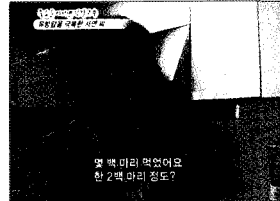
이것의 정체는 바로 오리푸딩입니다.



오리가 푸딩이 된다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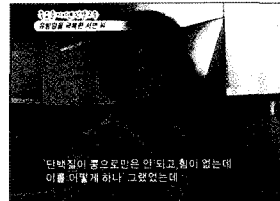
이게 바로 서연 씨 표 오리푸딩의 엄선된 재료인데요.

오리고기, 누룩, 옛기름, 사과, 키위 등입니다.



【서연 씨】 오리를 몇 백 마리 먹었어요. 한 2백 마리 정도?

‘단백질이 콩으로만은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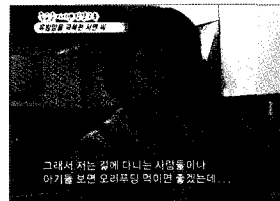


단백질이 콩으로만은 안 되고 힘이 없는데 이를 어떻게 하나 고민했었는데 이걸 먹고 정말 좋았어요.



이걸 먹고다니 정말 좋았어요

되고 힘이 없는데 이를 어떻게 하나 고민했었는데 이걸 먹고 정말 좋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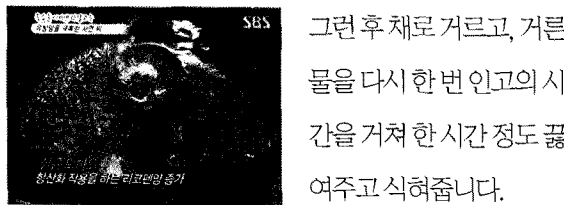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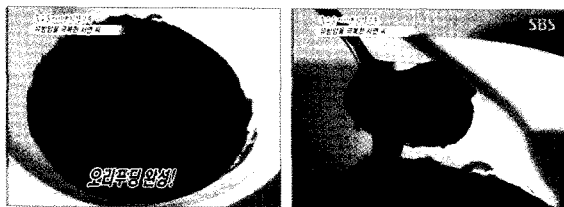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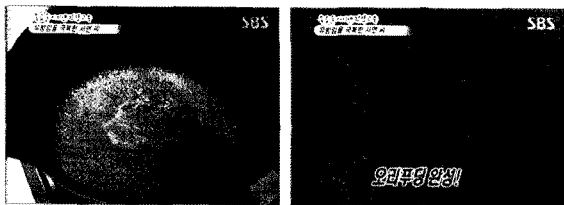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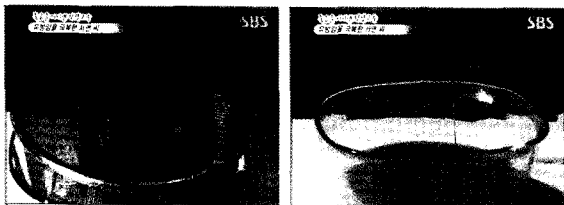


그래서 저는 길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아기들 보면 오리푸딩 먹이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곤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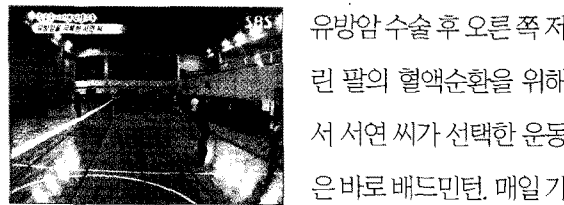
답니다.

물에 오리 한 마리, 옛기름 누룩 한 수저씩을 넣고, 사과와 키위 한 개씩 넣고 강한 불에 한 시간 정도 끓인 후 약한 불에서 24시간 끓여줍니다.





이게 바로 오리푸딩입니다.
 또 토마토를 삶으면 항암 작용을 하는 리코펜양이 증가해서 암 환자에게 좋은 음식이라고 하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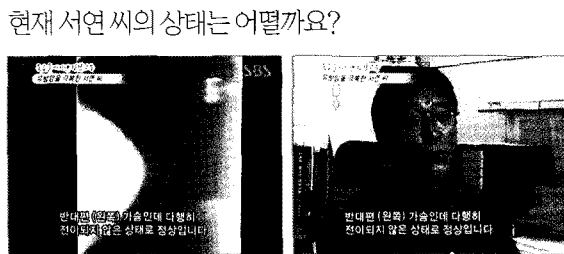


유방암 수술 후 오른 쪽 저린 팔의 혈액순환을 위해서 서연 씨가 선택한 운동은 바로 배드민턴. 매일 가족과 함께 한다는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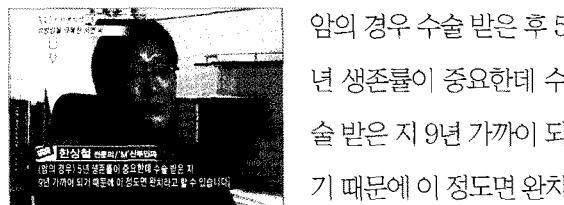
【동호인】 처음에는 몰랐어요. 워낙 건강해서요. 예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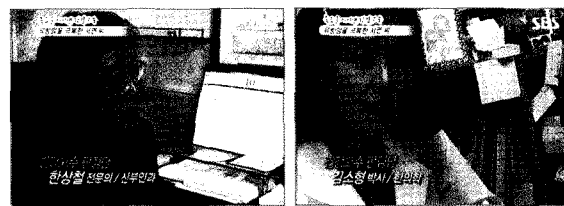
아프다는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엄마는 건강고수가 확실합니다!
 한쪽 유방에 암이 있었을 경우 다른 쪽 유방에도 전이되기 쉽다는데요.



【한상철 전문의】 반대편인데 다행히 전이되지 않습니다.



그럼 유방암을 극복한 서연 씨의 건강고수 판정단들의





TV속 오리기행

[건강고수] 오리푸딩으로 유방암 극복한 서연씨



평가는?

【판정단】 고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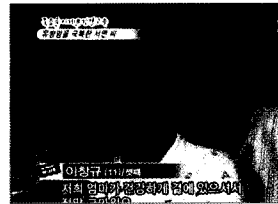
【김소형 한의학 박사】 오리고기를 드시게 되면 혈액의 산성화를 막아주고 불포화 지방산 함량 자체가 높기 때문에 고혈압, 심장병과 같은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탤런트 김형일】 어머니, 건강고수로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서연 씨 남편】 지금 이렇게 건강해져서 우리 가족 전체가 행복해진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영원히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 3】 저희 엄마가 건강하게 곁에 있으셔서 정말 고마워요.



가족의 사랑과 힘으로 이겨낸 유방암의 고통. 서연씨를 건강고수로 인정합니다.

